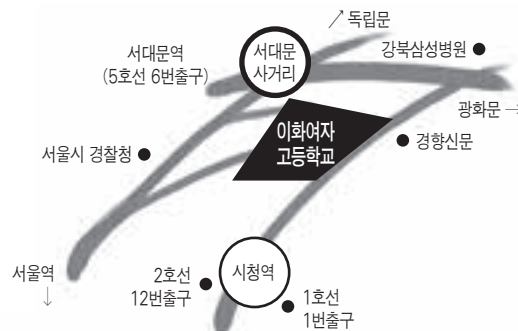


2013년 10월 19일(토)~20일(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사랑의 친구들이

‘결식아동 돕기 16번째 바자’를 엽니다

※ 바자의 수익금은 소외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 문의 : 사랑의 친구들 734-4945~7

발행인 : 김성재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13년 9월 / 통권 제 36 호



인간 빙하기가 오기 전에

김성재 (사랑의 친구들 회장)

올해 여름은 지난 100여년 역사에서 가장 무덥고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어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남쪽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무더위만 계속되어 농산물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올해 더위와 장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이 거의 없는 아열대 기후로 변해 남쪽에서 생산되던 과일들도 북쪽지방으로 옮겨왔고, 바닷물이 더워져서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던 생선들도 모두 북한과 러시아 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유럽 지역은 도나우강이 범람해서 강과 연결된 주변의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가 물에 잠겼는가 하면, 미국도 한쪽은 홍수가 한쪽은 가뭄에 산불까지 계속 번지는 자연재해가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 지구에 빙하기가 온다고 기후과학자들이 예견했고, 이런 내용이 영화로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래서 UN은 환경, 기후변화 문제를 이제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제환경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리우국제환경회의에서 이제 환경,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는 어느 한 나

라,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 인류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환경회의 협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협약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과 이웃에 대한 배려보다 탐욕이 앞서고, 현재의 이익과 안일 때문에 곧 자기에게 똑같이 닥칠 재해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자연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기후이상 변화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사계절이 뒤엎겨 뒤죽박죽되는 이상 기후만이 아니라 이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삶의 가치를 사랑과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자연빙하기보다 더 무서운 인간빙하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은 작은 사랑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자연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조그만 사랑은 이웃과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친구들이 되어 인간빙하기가 오기 전에 사랑과 생명의 아름다운 행진을 함께 하기 바랍니다.

신나는 우리 캠프로 놀러오세요!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후원하는 어린이캠프에 1,631명 참여해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2004년부터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연합캠프를 지원해왔다.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은 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공동체意識과 집단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공부방으로서의 연합하여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므로 혼자서는 진행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연합캠프는 5개 이상의 공부방이 연합해 진행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올해 11개의 연합캠프를 선정해 지원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조은옥)에서는 매년 바자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우리 어린이들의 캠프에 후원해왔다.

♥ 대구지역아동센터동구연합회

악동들이여 스트레스는 팍팍~소리는 울려라

7월 25일~27일

충북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 ★ 쿵쿵 울려 퍼지는 장구와 가야금 소리에 맞춰 하나 되는 친구들.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내 몸을 악기처럼 두드리며 신명나게 놀아보는 여름캠프
- ★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시온지역아동센터, 신나는효목지역아동센터, 신서지역아동센터, 신천지역아동센터(어린이 58명, 교사 9명)



♥ 충북 청주시사랑의 한울타리

농촌아이들과 도시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캠프

7월 29일~31일 / 충북 괴산군 이화여자대학교 고사리 수련관

- ★ 청주 내 농촌 어린이들과 도시 아이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다양한 놀이와 역할극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소통의 캠프
- ★ 국사소로지역아동센터,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증평지역아동센터, 청주북부지역아동센터, 초록나무지역아동센터(어린이 94명, 교사 25명)



♥ 전북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만경강상류 생태탐사캠프

8월 2일~4일 / 전북 완주군 만경강

- ★ 우리 고장 인근의 만경강을 찾아 물고기 잡기 등 강에서의 체험을 통해 무더운 여름의 기운을 몰아낸다. 어린이들이 캠프 계획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캠프
- ★ 솔내지역아동센터, 시영지역아동센터, 신한지역아동센터, 열매지역아동센터, 전주지역아동센터, 푸른지역아동센터, 푸른초장지역아동센터, 한사랑지역아동센터(어린이 133명, 교사 19명)



♥ 충북 제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천지역 아동들을 위한 다중지능 캠프

8월 5일~7일 /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 ★ 진로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제천지역 어린이들이 여러 직업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미래를 찾는 여정.
- ★ 꽃매말지역아동센터, 누리꿈터지역아동센터, 도하늘푸른지역아동센터, 사랑의교실지역아동센터, 새제천지역아동센터, 아하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푸른지역아동센터(어린이 140명, 교사 28명)



♥ 서울 동대문구방과후교실연합회

8월 12일~14일 / 충남 서산시 천응수양관

- ★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하는 신나는 놀이를 통해 어느새 처음 만난 친구들과도 벗이 된다. 일상생활에서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해결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캠프
- ★ 반석방과후교실, 사랑아이방과후교실, 열린방과후교실, 전농방과후교실, 천응방과후교실(어린이 101명, 교사 30명)



♥ 경남 함안군·의령군지역아동센터
추억만들기 오토캠핑

8월 7일~9일 / 경남 함안군 칠서 강나루 오토캠핑장

- ★ 야외 캠핑이 생소한 어린이들이 2박 3일을 함께 한다. 내가 만들어 먹는 요리는 어느 음식보다 일품.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힐링 캠프
- ★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대산지역아동센터, 사랑샘지역아동센터, 양북지역아동센터, 열방지역아동센터, 진항지역아동센터, 칠원지역아동센터, 햇살공부방(어린이 215명, 교사 65명)



♥ 전북 익산 해천나래연합공동체
자연! 그 속에서 찾는 힐링

8월 12일~14일 / 충남 서천군 장항 성일복지원

- ★ 도심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캠프. 2박3일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며 소중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 ★ 동산지역아동센터, 든든한지역아동센터, 미소지역아동센터, 반석지역아동센터, 옥아지역아동센터, 중앙지역아동센터,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어린이 91명, 교사 24명)



♥ 전남 희망순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우도에서 살아남기

8월 7일~9일 / 전남 고흥군 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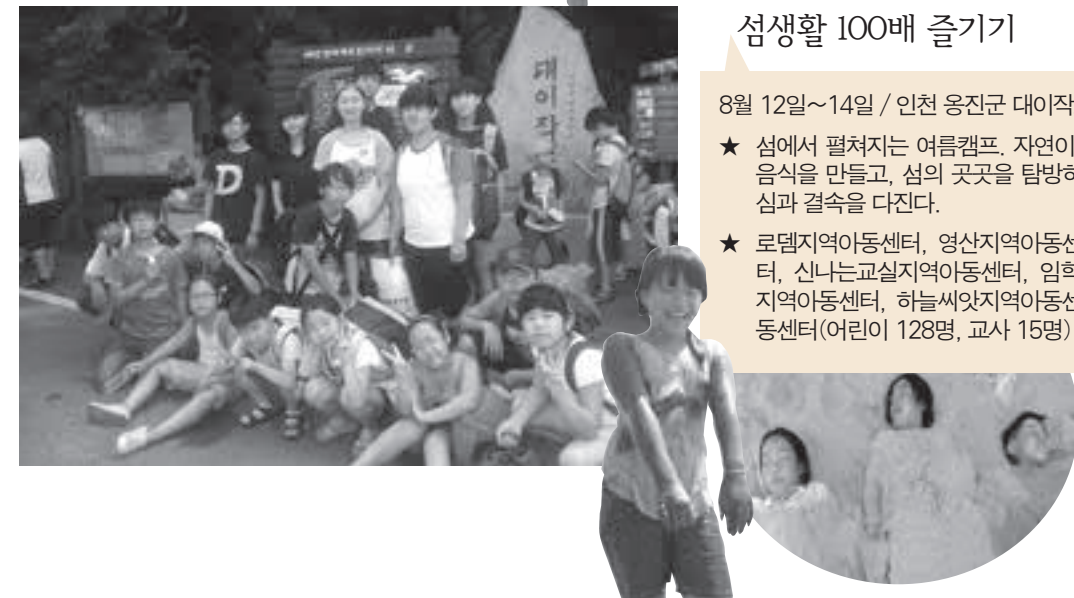
- ★ 섬지도 그리기, 불 피우기는 기본. 친구들과 힘을 모으는 섬에서의 서바이벌이 시작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갈 때마다 자신감은 쑥쑥
- ★ 동순천지역아동센터, 밀알지역아동센터, 승주지역아동센터, 장천지역아동센터, 한고을지역아동센터, 해룡가얹지역아동센터, 황월지역아동센터(어린이 71명, 교사 24명)



♥ 인천 계양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섬생활 100배 즐기기

8월 12일~14일 /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 ★ 섬에서 펼쳐지는 여름캠프. 자연이 주는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섬의 곳곳을 탐방하며 친구들과의 협동심과 결속을 다진다.
- ★ 로델지역아동센터, 영산지역아동센터, 새벽지역아동센터, 신나는교실지역아동센터, 임학지역아동센터, 키피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어린이 128명, 교사 15명)





♥ **충북 음성교육문화연대** 바다에 풍덩! 내마음도 풍덩!

8월 19일~21일 / 충남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 ★ 농촌 어린이들의 바다캠프. 바다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갯벌놀이 등 신나는 놀이와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뽐내는 장기자랑으로 자신감 넘치는 '나'로 성장한다
- ★ 부윤지역아동센터, 삼성지역아동센터, 씨앗지역아동센터, 음성지역아동센터, 청보리지역아동센터(어린이 93명, 교사 27명)



♥ **인천 연수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우리들의 2박3일 야영캠프

8월 12일~14일 / 인천 옹진군 소야도

- ★ 텐트를 직접 설치하는 야영 체험캠프. 친구들과 협동하여 만들어낸 텐트에서 2박3일을 함께 보내며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나눈다
- ★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선학동지역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선향지역아동센터, 위즈키즈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어린이 200명, 교사 41명)



나누기만 했던 선생님들을 위한 채움의 시간

지역아동센터 교사교육 6월 12일~14일 전북 무주에서 진행



교사교육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4년부터 사랑의 친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쉽과 치유'를 주제로 2013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로 지원이 결정된 11개 연합체의 2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31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교육은 2박3일의 일정으로 지난 6월 12일~14일, 전북 무주군 H.힐스리조트에서 열렸다. 진행은 이덕희(명상센터 공감 대표), 백윤영미(힐링드라마연구소 소장), 이재운(이재운 요가아카데미 원장)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마지막날에는 여름방학 동안 진행하게 될 연합캠프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년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캠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해야 할 교사들은 센터내 교육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바쁜 현장의 일에 지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소진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교사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2박3일간 명상, 요가, 감정읽기 등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강점과 약점인 '빛과 그림자'를 찾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교사들 자신의 삶의 경험을 연극으로 공연해 보는 힐링드라마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3 지역아동센터 교사교육을 마치며

“자기돌봄의 후식요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배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힘들었는데 몸과 마음을 챙기고 심을 통해 회복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에너지 충전하고 갑니다. 내 안에 있던 표출하지 못했던 욕구들을 드러내며 해 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힐링캠프라면 다음에도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3일,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4월 24일~26일 강원도 지역 4개 공부방 어린이 서울 방문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서울초청 행사'는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 공부방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여 서울의 문화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보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KB국민은행(은행장이건호)과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조은옥)이 후원했다.

사랑의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은영이에요. 서울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게임을 했고,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은 저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63빌딩, 에버랜드는 진짜 재미있어요. 그리고 숙소가 2층 침대라서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_ 신천사랑지역아동센터 김은영

4월 24일~26일, 강원도 지역의 마리아지역아동센터(강릉), 신천사랑지역아동센터(영월), 해오름꿈터지역아동센터(원주), 흑빛지역아동센터(정선) 어린이와 교사 72명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첫날, 서울 경복궁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수문장 교대식을 시작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 청계천 등을 걸으면서 서울 중심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껴보는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김성재 회장과 서울초청 행사를 후원해 온 글로벌어린이재단의 박희양 회원이 어린이들과 직접 인사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시간에는 비록 강원도라는 같은 지역에는 살지만 첫만남이 어색한 어린이들을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해 신나게 놀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실제 유물을 직접 보면서 역사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오후에는 한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63씨티를 방문하여 수족관, 3D아이맥스, 왁스뮤지엄 등을 관람하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 초청행사의

마지막날은 어린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놀이공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방문하여 놀이기구를 타고, 동물원 동물들과 다양각색의 꽃 등 다양한 볼거리를 보면서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

사랑의 친구들과 후원자님께
사랑의 친구들과 후원자님, 저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갔을 땐 참 재미있었어요. 서울에 있던 좋은 숙소와 식사는 참 맛있고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경복궁, 청계천, 박물관 그리고 에버랜드 등은 참 재미있었고, 레크리에이션은 재밌고 흥겹게 잘 했고, 사랑의 친구들의 티셔츠도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후원자님 덕에 흑빛 친구들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많이 걸었지만 그래도 행복이 두배로 찾아왔습니다. 후원자님 덕에 공부방 생활을 참 재밌고 신나고 또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TV로만 볼 때는 잘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실제로 봐서 더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고 힘든 추억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귀중한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맛있는 간식과 밥을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주시고 저희 흑빛 공부방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_ 흑빛지역아동센터 전지연

사랑의 친구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교동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이동진입니다. 재미있는 행사에 초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초청해 주셔서 많은 구경을 해서 많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 63빌딩과 에버랜드에서 놀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63빌딩은 씨월드에서 물고기를 보았던 것이 재미있었고 전망대에서 놀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는 많은 놀이기구를 타서 재미있었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했던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초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_ 마리아지역아동센터 이동진



바자 위해 회원들은 1년간 준비하고 자비로 고국 방문해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아 한국의 공부방 지원 등 총 26만 9천 달러 지원

글로벌어린이재단은 세계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내년 세계 불우아동 돕기 예산 26만 9천불이라는 큰 금액을 2013년 이사회에서 책정하였다.

현재 돕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 키르즈키스탄, 몽골, 남수단, 과테말라, 아이티, 탄자니아, 페루, 케냐, 콩고, 멕시코, 인도, 차드, 남아프리카 등 세계 15개국이다.

올해 4월에 작년에 이어 미국 동부 버지니아에서 GCF 이민 2세를 중심으로 한 '생명 사랑 8K 걷기 대회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로 GCF를 미국 사회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으며, 총 12,000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Donation - Combined Federal Campaig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매달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GCF에 보낼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캠페인은 미국 각 주정부에도 신청을 계획하고 있어 더 많은 주류사회인들로 확장될 것이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고자 해외의 한국여성들이 모여 1998년 창립한 단체이다. 미국 내 17개 지부와 캐나다, 홍콩, 일본의 회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한국의 결식아동돕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998년부터 사랑의 친구들이 벌이는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에서 한해도 빠짐없이 해외 특산물 코너를 열고 그 수익금을 기부해왔다. 올해 '사랑 나누기 바자 한마당'을 앞두고 준비가 한참인 글로벌어린이재단의 소식을 소개한다.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은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의 불우 아동돕기 바자 참석을 앞두고 20개 지부에서 어느 해보다도 더 열심히 바자 준비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CF 회원들의 한국 바자 준비는 거의 1년 내내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지부에서는 반찬 만들기, 걷기 대회, 일일차집, 또는 골프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바자 물품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도 하고, 바자 준비위원장과 회원들은 좋은 물건 세일할 때를 잘 기다렸다가 장거리 운전도 마다 않고 가서 구입을 한다. 또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특별후원금도 선뜻 주시는 고마운 후원자들이 있기에 GCF의 한국 아이들 돕기 활동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다.

한국 바자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항공료 및 모든 경비는 각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환풍이라도 더 모아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올해도 바자 준비에 열심이다.

각 지부에서는 미국, 캐나다, 홍콩, 일본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특산물을 비롯하여 각종 비타민, 가정용품, 신발류, 커피, 옷, 스카프, 액세서리 등등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브랜드거나, 또는 가격이 아주 비싼 제품들을 저렴하게 준비하여 구입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아이들 돕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온 바자 수익금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원하고, 장애아들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여러달 동안 바자를 준비하는 '사랑의 친구들'에게도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성공적인 바자가 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모든 준비위원들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로벌어린이재단 본부 사무국

■ 제32차 정기 이사회

사랑의 친구들 제 32차 정기이사회가 8월 27일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3년 상반기의 재정 및 사업보고에 이어 2013년 하반기 사업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다.

이사회에서는 10월 19일~20일 열리는 2013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내년 설을 앞두고 진행될 '2014 사랑의 떡국 나누기' 일정을 2014년 1월 23일(목)로 결정했다.



■ 아동 장학금 후원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어린이,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이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개별 후원자가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장학금 후원사업은 현재 11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19명의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있다.

<아동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

김경란, 김철웅, 김흥기, 남은미, 노영혜, 신선련, 인재근, 정명화, 최병권, 최병철, 최병호 님

■ 사랑의 간식나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후원으로 시작된 사랑의 간식나누기

사업. 국제선에서 개봉되지 않고 나온 주스, 라면, 스낵, 그리고 초콜릿 등을 모아 공부방에 6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상반기 동안 10개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들 급식에 도움이 되는 식품류(국수, 쇠고기 다시) 및 기타 잡화 등을 함께 지원하였다.

2013년 하반기에는 10개 지역아동센터를 새로이 선정해 어린이 221명에게 간식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선정기관>

서울지역: 한사랑지역아동센터

구리지역: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 아치울지역아동센터, 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인천지역: 씨앗지역아동센터, 청운지역아동센터, 효성지역아동센터

정읍지역: 보듬우리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칠보지역아동센터

■ 외환은행 나눔재단 우표 기증

7월30일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보유 중인 미사용 우표(액면가 737,510원)를 사랑의 친구들에게 기증했다.

외환은행 나눔재단의 우표기증은 2011년 8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278장, 액면가는 모두 1,795,210원에 이른다.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원 초청 '힐링 콘서트'



6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E.A.M 앙상블이 주최하는 '힐링 콘서트'에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2명이 초청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E.A.M 앙상블의 이번 공연은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퓨전 콘서트로 클래식 공연 관람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을 마친 후 E.A.M 앙상블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에 써주기를 바라며 공연 티켓 수익금 전액(50만원)을 사랑의 친구들에게 기부했다.

■ 종이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위한 종이접기 교육'



6월 20일 종이문화재단(이사장 노영혜)가 후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위한 종이접기 교육 수료식이 종이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종이접기 교육은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고, 어린이들에게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킴으로 집중력, 창의성은 물론 학업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종이문화재단에서 수강료와 재료비 등 일체 비용을 후원하고 4월 4일 ~ 6월 20일 진행하였으며 이날 수료식에서는 32시간의 이론 및 실기수업을 이수한 21명의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자격증을 수료하였다.

■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평가회



6월 11일 경제적인 이유로 영어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지역 공부방 어린이들도 재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25차 평가회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되었다.

평가회에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65개 지역아동센터 담당 교사와 자원봉사자 67명이 참석하였고, 2006년부

터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후원하고 있는 미래희 박지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평가회는 2시간여에 걸쳐 그동안 수업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의 영어실력 성장사례, 지역아동센터별로 진행하고 있는 개성있고 특색있는 수업 방식, 영어교실에 관한 제언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위해 3년 이상 꾸준히 자원봉사해 주고 계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26차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참여기관>

가수원지역아동센터 • 갈현지역아동센터 • 극동지역아동센터 • 기쁨지역아동센터 • 꽃동산지역아동센터 • 꿈샘지역아동센터 • 꿈이 있는 • 푸른학교 • 나래지역아동센터 • 노아지역아동센터 • 늘푸른지역아동센터 • 다솜지역아동센터 • 덕진지역아동센터 • 동산지역아동센터 • 든든한지역아동센터 • 마리아지역아동센터 • 만수행복지역아동센터 • 무지개지역아동센터(광주) • 무지개지역아동센터(익산) • 문흥지역아동센터 • 미소지역아동센터 • 반여지역아동센터 • 베스파지역아동센터 • 사랑샘지역아동센터 • 사랑이있는지역아동센터 • 석남지역아동센터 •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 세움터지역아동센터 • 소망지역아동센터 • 솔로몬지역아동센터 • 신천지역아동센터 • 씨앗지역아동센터 • 야!우리지역아동센터 • 에스더학교지역아동센터 • 역곡지역아동센터 • 열린방과후교실 • 열린학교지역아동센터 • 열매지역아동센터 • 영순지역아동센터 • 영현비전지역아동센터 • 예사랑지역아동센터 • 오정지역아동센터 • 원미지역아동센터 • 월곡초소년센터방과후교실 •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 • 전농방과후교실 •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 지구촌지역아동센터 • 진원지역아동센터 •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 • 천웅방과후교실 • 천재지역아동센터 • 춘천반석지역아동센터 • 평화디딤돌지역아동센터 • 푸른솔생활학교지역아동센터 • 풀코스모스지역아동센터 •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 하버드지역아동센터 • 한사랑지역아동센터 • 해오름지역아동센터 • 행복한지역아동센터 • 향기로운지역아동센터 • 효자지역아동센터 • 희망지역아동센터 • 힘찬키움지역아동센터



미래희 박지완 회장(오른쪽)이 전농방과후교실의 맡은 하계 자원봉사자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 하우스 투어



5월 30일 하우스투어는 저소득지역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비 모금을 위한 행사이다. 개성있는 집, 아름다운 집을 가진 명사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 소개하고, 투어에 참여하는 이들은 모금에 참여하면서 집 주인의 독특한 개성과 취향을 엿볼 수 있다. 10번째로 진행된 올해 하우스 투어에는 14명이 참여해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디자인하우스 이영혜 대표의 자택인 지우현, 강신애 대표가 운영하는 따뜻한 재단, 예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단체인 재단법인 예술, 그리고 17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춘원당한방박물관을 방문했다. 이번 투어에서 참가자들은 봄날의 기운을 받으며 한옥이 밀집한 북촌에서 인사동까지 이어지는 길을 직접 걸으면서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 2013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약정식



4월 19일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로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한걸음 성장하는 '2013 저소득지역 어린이 연합캠프' 약정식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약정식에는 서류심사와 기관 방문을 통해 선정된 11개 연합회 대표와 담당자 18명이 참석하여 지원기관증서 전달식 및 약정서 작성,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 KB국민은행 청운동 지점 성금 기부

3월 25일 KB국민은행 청운동지점 심규삼 지점장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을 방문해 후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 KB국민은행 청운동 지점은 2006년부터 사랑의 친구들을 후원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

■ 따뜻한 재단과 함께 하는 '가끔 열리는 음악학교'

재단법인 따뜻한 재단에서 후원하는 '가끔 열리는 음악 학교'는 문화적 혜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느끼고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뜻한 재단에서 음악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악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들과 함께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교사를 파견해 6개월간 진행한다. 첫 시작으로 서울의 진관지역아동센터에서 9월부터 매주 1회 '가끔 열리는 음악학교-드럼스쿨'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과 함께 하는 '나눔의 숲 캠프'



사랑의 친구들과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이 함께 하는 '2013 상반기 나눔의 숲 캠프'가 강원도 숲체원에서 진행되었다. 나눔의 숲 캠프'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1박2일 또는 2박3일 동안의 숲속 생활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자신감 및 자발성을 키우는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 일시: 2013년 1월~4월
- 장소: 강원도 청태산 숲체원
- 참여인원: 9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17명
<2013년 상반기 나눔의 숲 캠프 참여기관>
가야지역아동센터, 갈릴리지역아동센터, 관설지역아동센터,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샤론지역아동센터, 태장지역아동센터, 태일지역아동센터, 희망지역아동센터

■ 사랑의 목도리 뜨기 캠페인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목도리 뜨기.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2011년 10월에 1500점, 2012년 10월에 2,800점의 목도리를 북한의 어린이와 결핵병원의 환자가정에

전달한데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목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의 목도리를 뜨기 위해 필요한 후원금은 1만원. 강북삼성의료재단, 남원제일교회, 미래회, 삼성전자 구미자원봉사센터, 삼성토탈(주), 아름다운땅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성회 등 단체와 김유락, 김홍남, 박은경, 배은영, 이미경, 인재근씨 등 개인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의 :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02-734-4945~7)

■ 물품 후원·지원 현황

- 여성신문사에서 40만원 상당의 스쿨룩스교복교환권 4매를 기증(2월 21일)했다. 이 교복교환권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교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합지역아동센터, 위즈키즈지역아동센터, 희망남구지역아동센터에 지원했다.
- 사랑의 친구들이 국수 30박스, 자동치약짜개 20개, 쇠고기 다시다 57개를 가람지역아동센터, 그린지역아동센터, 한결지역아동센터,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돌레랑지역아동센터, 아이!우리지역아동센터, 영천지역아동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 패밀리지역아동센터, 하랑지역아동센터에 지원(3월 14일~4월 18일)했다.
- 유희영 씨가 잡화와 의류 등 7박스를 기증(4월 16일)했다.
-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더스에서 어린이 도서 89권을 기증(1월 24일)했다. 이 도서는 마리아지역아동센터, 신천사랑지역아동센터, 해오름꿈터지역아동센터, 흑빛지역아동센터에 지원했다.
- 사랑의 친구들이 와이셔츠 등 의류 15박스를 인클로벌재단의 '결혼 이민자 카페 오픈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지원(6월 19일)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새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 물품을 보내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는 16번째 바자의 아나바다 코너로 보내주세요. 아나바다 코너인 "코끼리 장터"에 모인 물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됩니다. 물품은 우편을 이용해 사랑의 친구들 사무국으로 보내시거나 바자 당일 일찍 행사장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친구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483. (02)734-4945~7.

